

# 배구 활성화·지역공헌 으뜸인데...구단 운영은 아쉬움

## 광주 A페퍼스 V리그 결산

### <중> 선수 스카우트·구단 운영 미흡

광주 A페퍼스의 사회공헌과 지역 사회 기여는 국내 프로배구단 가운데 으뜸이다.

지난 14일 광주 흥경기 수익금 전액을 광주·전남 지역 유소년 배구 발전을 위해 기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호남 지역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페퍼저축은행&AI 페퍼스 희망 장학금'을 올해까지 3회째 전달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유소년배구팀의 운영,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배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선수 스카우트와 구단 운영면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올 시즌 선수 영입과 접촉 과정에서 매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 여파로 신생 구단의 참신한 이미지가 손상되는 결과를 낳았다.

페퍼스는 지난해 12월 국가 대표 출신 리베로 오지영의 이적 과정에서 GS칼텍스가 제시한 '전 소속 팀 상대 경기 출전 불가' 조항을 수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팬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GS칼텍스가 '즉시 전격인 오지영을 이적이 내주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오지영을 올 시즌 남은 GS칼텍스전에 투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청했고, 페퍼스가 수용한 것이다. 선수 권리는 물론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팬들의 비판을 받았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양 팀 간 합의에 따라 오지영

오지영 파문에 리드 '대마' 퇴출  
학폭 논란 이재영 접촉해 시끌  
신생구단 참신한 이미지 손상  
외국인 감독 선임 '기대반 우려반'

흥경기 수익금 기부·장학금 등  
꾸준한 지역사회 공헌 돋보여

은 올 시즌 GS칼텍스전 3경기를 뛰지 못했다. 구단은 팬들에게 유감 표명 한마디 없었다.

팬들은 "GS칼텍스가 상식밖 조건을 제시했지만 팀이 아무리 어려워도 페퍼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승부 조작'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페퍼스는 지난해 10월 학교 폭력 논란을 빚은 이재영을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흥경을 치르기도 했다.

이재영이 지난해 2월 학창 시절 폭력 가해 폭로가 나오면서 국내에서 설 자리를 잃은 선수였기 때문에 논란이 됐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등 선행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단이 이재영을 접촉한 것은 무리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배구계 원로인 김영실 페퍼스 감독이 적극 해명하는 등 진화에 나서 논란이 가라앉았지만 개운치



지난 2월 5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광주 A페퍼스와 GS칼텍스전에서 벤치에 앉아 응원하고 있는 리베로 오지영(맨 앞). 오지영은 페퍼스와 GS칼텍스가 '전 소속 팀 상대 경기 출전 불가' 조항에 합의함에 따라 올 시즌 GS칼텍스전 3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않은 뒷맛을 남겼다.

시즌 종료를 앞두고 아포지 스파이커(라이트) 니아 리드가 대마성분이 함유된 불법물품을 소지한 혐의로 퇴출된 것도 선수 관리 측면에서 오점을 남겼다.

스카우트 잡음이 일자 배구계는 페퍼스가 선수 영입과 구단 운영에서 적극적이고 무원칙한 것이 아니냐는 눈길을 보내고 있다.

배구계의 한 관계자는 "페퍼스 구단에서는 단장, 스태프, 사무국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모기업의 입

김이 워낙 세다보니 선수 영입 등에서 크고 작은 논란이 이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선수 스카우트, 구단 운영에서 모기업과 구단 실무진, 스태프 등이 서로 소통하면서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리는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외국인 감독을 사령탑에 앉힌 것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구단 안팎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구단에 국내 감독 선임을 권유했다. "틀이 잡히지 않은 신생팀이고 국내 리그에 적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 배구에 어두운 해외 감독보다 국내 감독을 선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류였다고 한다. 하지만, 구단의 최종선택은 한국계 미국인 아헨 김(38) 감독이었다. 구단은 그가 2018년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디비전1 브라운대 감독을 맡은 지 4년 만에 팀을 아이비 리그 1위에 올리며 사상 최초로 NCAA 토너먼트 진출을 달성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선수 발굴·육성에 탁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결과로 판단하겠지만 한국 배구 사정을 잘 모르고 프로무대에서 지도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선을 긋는다. 주요 국가대표팀 사령탑을 맡았고 유명 클럽팀을 지도한 마르첼로 아본단자 흥구생영 감독과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도 있다. 아본단자 감독이 지도력을 세계 무대에서 검증받은 반면, 아헨 김은 국내 배구계에도 생소한 인물이다. 페퍼스는 다음 시즌을 아헨 김 감독 체제로 치른다. 새감독을 선임한 페퍼스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팬들의 눈길이 쏠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체육중·고 레슬링 전국대회 '메달 잔치'

### 회장기대회 금 6·은 1·동 8개 합평중·학다리고도 메달 수확

전남체육중·고등학교가 제41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금 6개, 은 1개, 동 8개를 수확했다.

22일 전남체육중·고 레슬링부에 따르면 전남체육고는 최근 강원도 철원에서 열린 대회에서 금1, 은1, 동 4개를 따냈다.

체육고 김국진은 자유형 97kg급 결승에서 같은 학교 후배 허현찬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허현찬은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승현(55kg)과 정승현(이상 그레코로만 67kg), 이은수(70kg), 김태민(이상 자유형 125kg)은 동메달을 추가했다.

전남체육중은 금 5, 동 4개를 따냈다. 이다훈(80kg급)과 채진호(60kg급), 김예찬(이상 그레코로만 65kg급), 김예찬(자유형 65kg), 박태운(자유형 92kg)이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진(42kg급), 이은수(이상 그레코로만 55kg급), 이현균(48kg급), 채진호(이상 자유형 60kg급)는 동메달을 보냈다.



전남체육중고등학교 레슬링부.

<전남체육중고 체육계 제공>

'레슬링 메카' 합평 선수들의 활약도 돋보였다. 합평중 정현우(51kg급)·나준우(92kg급)가 동메달, 합평학다리고 나종혁(130kg급)이 은메달,

합평중레슬링협회 김기빈(63kg급)·나명길(이상 그레코로만 72kg급)이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생일날 LPGA 데뷔하는 유해란

### "좋은 경기 펼쳐 생일선물 받겠다"

#### 23일 드라이브온 챔피언십 개막

유해란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데뷔전에서 생일 선물을 받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유해란은 오는 23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애리조나주 골드캐니언의 슈퍼스티션 마운틴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파72·652야드)에서 열린

는 LPGA 투어 드라이브온 챔피언십(총상금 175만 달러)에 출전한다.

작년 12월 LPGA 켈리파이프 시리즈를 1위로 통과한 뒤 신인 자격으로 처음 나가는 데뷔전이다.

2001년 3월 23일생인 유해란은 22일 LPGA와 인터뷰에서 "대회 첫날이 내 생일이어서 많은 의미가 담긴 대회가 될 것 같다"며 "감회가 새롭고 좋

은 마무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해란은 "(전지훈련에선) 거리를 늘리려고 많이 노력했다"며 "그런 주변 어프로치도 많이 연습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좀 더 연습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잘 떨어뜨리겠다"고 말했다.

유해란은 2020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신인왕 출신이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켈리파이프 시리즈 9위에 오른 박금강의 데뷔전이기도 하다.

박금강은 "대회에 와보니까 신기하고 긴장도 된다"며 "대회 목표는 톱10에 드는 것이고 시즌 목표는 시드 유지"라고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

## 광주시청 장애인양궁 정진영·김옥금 태극마크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김옥금(왼쪽)과 정진영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제공>

### 1·2·3차 대회 모두 1위 기염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정진영과 김옥금이 태극마크를 달았다.

22일 광주시장애인양궁팀에 따르면 정진영(킥 파운드 오픈)과 김옥금(W1)이 최근 경기도 이천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에서 치러진 2023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서 태극마크의 주인공이었다. 이들은 1, 2, 3차 대회에서 모두 1위에 오르며 각각 종합 1위로 국가대표를 확정했다.

정진영과 김옥금은 오는 7월 장애인양궁 세계선수권대회, 10월 황제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11월 방콕 장애인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정진영은 "힘든 훈련과정을 이겨내고 좋은 결과를 얻어낸 나 자신에게 '고생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며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따내 광주 장애인양궁의 위상을 높ی겠다"고 말했다.

김옥금도 "올해 열리는 국제대회에서 좋은 결과

를 얻어내는 것이 목표"라며 "2024 파리 패럴림픽 무대에 서는 그날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안형숙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감독은 "정진영과 김옥금 선수가 꾸준히 경기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컨디션 조절이나 체계적인 맞춤형 집중지도에 전력,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감독은 이어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은 앞으로 제2, 제3의 정진영과 김옥금을 배출하는 강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제2의 안산'으로 주목받는 권유나(리커브)가 세계무대에서 빛날 수 있도록 경기력 향상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선발전은 지난해 9월 개최된 2023년 장애인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각 종목 종합순위 1~4위에 참가 자격이 부여됐다.

리커브 남녀 각각 2명, 킥파운드 남녀 각각 2명, W1 남녀 각각 2명 등 총 12명의 국가대표가 최종 확정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스즈메의 문단속, 사정! 신들의 분노
- 2관 스즈메의 문단속
- 3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모나리자와 블러드 문, 플레인
- 4관 웅남이
- 5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팔로우드
- 6관 스즈메의 문단속, 꼬마돼지 베이브의 바다 대모험
- 9관 소울메이트
- 7관 씨네마클 모나리자와 블러드 문, 퓌코퍼이스
- 8관 씨네마클 더 퍼스트 슬램덩크, 소울메이트, 파벨만스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3-01(수) ~ 2023-03-31(금)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광주시립발레단 기획공연 발레상설공연서트 II  
<단원안무전 Ballet Curation>  
일시 : 2023-03-31(금) 19:30  
2023-04-01(토) 15:00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415-5502 / 062-522-8716